

제공일자	2015. 6. 29(월)	담당자	김석영 동향분석실 부실장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담당역(3775-9115)	연락처	3775-9029
			총 3매

제목 : 2015년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을 5.2%에서 7.5%로 상향 조정

보험연구원(원장 강호)은 동향분석실이 작성한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2012년 이후 매년 3.4% 성장하며 이전의 성장률 하락세가 멈추었던 세계경제의 경우 **2015년** 성장률이 다시 낮아질 것으로(3% 내외) 전망됨. 이는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유가 하락이 소비와 투자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역량 둔화**가 특히 **신흥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

미국, 유로,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중국의 경기부양정책 등으로 주요국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은 **거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9월로 예상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주요 환율시장과 함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하반기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국내경제는 2014년의 경우 연간으로는 3.3% 성장하며 2012년(2.3%), 2013년(2.9%)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으나, **분기별 성장률**이 1/4분기 3.9%, 2/4분기 3.4%, 3/4분기 3.3%, 4/4분기 2.7%로 계속해서 낮아졌음. 2015년 1/4분기에도 성장률이 2.5%로 하락함. 이는 가계부채 부담과 주거비 상승 등으로 **민간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유로화 및 엔화 약세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부진, 그리고 선진국의 수입 수요 감소로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5년 국내경제는 2.7%(기존 전망 3.7%, 이하 기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추경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공요금 인상 이외에는 특별한 상승 요인이 없어 1%를 하회할 것으로 보임.

2014년 연평균 2.6%를 기록한 국채(3년) 금리는 2014년 8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로 2015년 1~5월 중 평균 1.9%까지 낮아졌음. 그러나 9월로 예상되는 미국 금리 인상과 이를 전후한 국제금리 상승 추이를 고려할 때 국채(3년) 금리는 6월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상승하여 2015년 연평균 2.0%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2015년 1~5월 중 평균 1,096원을 기록한 원/달러 환율도 국제금리 상승에 따라 하반기 높아져 연평균 1,120원이 예상됨.

2015년 들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경우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 성장세가 2014년 10월 당시 전망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2015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가 7.5%(기존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함.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2014년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로 1.9%(보장성보험: 5.1%, 저축성보험: -5.0%, 단체보험: 40.9%) 증가하는데 그침. 2015년에도 생명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과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14년과 같이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의 높은 성장이 예상됨. 이에 따라 보장성보험은 6.7%(기존 4.5%), 기저효과가 사라진 저축성보험은 4.7%(기존 5.0%), 단체보험은 27.3%(기존 10.8%)로 증가율을 수정함. 종목별 전망이 수정됨에 따라 2015년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을 7.9%(기존 5.4%)로 조정함.

2014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회복세를 보이고 퇴직연금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어 8.3%(장기손해보험: 6.1%, 개인연금: -3.2%, 퇴직연금: 78.9%, 자동차보험: 5.2%, 일반손해보험: -0.3%) 늘어남. 2015년에도 장기손해보험은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증가세에 힘입어 6.6%(기존 5.8%), 개인연금은 경제 부진 및 초회보험료 저성장으로 -1.5%(기존 0.2%),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으로 26.5%(기존 5.6%), 자동차보험은 2014년에 미반영된 자동차보험료 인상분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4.7%(기존 3.7%), 일반손해보험은 경제 부진으로 1.6%(기존 2.8%) 늘어날 것으로 보임. 종목별 전망이 수정됨에 따라 2015년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도 7.0%(기존 4.8%)로 조정함.

<표-1> 국내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정 전망	기존 전망
실질GDP 성장률	3.7	2.3	2.9	3.3	2.7	3.7
민간소비	2.9	1.9	1.9	1.8	1.9	2.7
설비투자	4.7	0.1	-0.8	5.8	4.5	5.7
건설투자	-3.4	-3.9	5.5	1.0	3.0	2.9
지식생산물투자	6.9	8.6	4.4	4.6	4.7	6.3
재화수출	17.1	4.4	4.5	2.3	1.7	6.0
재화수입	17.6	1.9	1.3	1.2	2.1	6.5
소비자물가	4.0	2.2	1.3	1.6	0.9	2.0
국채(3년) 금리	3.6	3.1	2.8	2.6	2.0	2.6
원/달러 환율(원)	1,108	1,127	1,095	1,053	1,120	1,040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표-2> 종목별 수입(원수)보험료 전망치

(단위: 억 원, %)

종목		FY2013 ¹⁾		2014		2015 수정 전망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생명 보험	개인	696,477	-10.6	979,382	-1.7	1,032,758	5.5	4.8
	보장성	248,094	4.3	346,027	5.1	369,325	6.7	4.5
	저축성	448,383	-17.2	633,355	-5.0	663,434	4.7	5.0
	단체	75,891	25.7	126,371	40.9	160,855	27.3	10.8
	퇴직연금	69,524	27.5	118,173	45.8	152,556	29.1	11.7
	합계	772,367	-8.0	1,105,753	1.9	1,193,613	7.9	5.4
손해 보험	장기손보	315,478	5.6	444,037	6.1	473,474	6.6	5.8
	개인연금	31,829	3.1	41,090	-3.2	40,474	-1.5	0.2
	퇴직연금	31,152	9.8	63,718	78.9	80,606	26.5	5.6
	자동차	97,435	0.4	135,484	5.2	141,866	4.7	3.7
	일반손보	61,679	1.5	81,424	-0.3	82,728	1.6	2.8
	합계	537,582	4.2	765,754	8.3	819,148	7.0	4.8
전체		1,309,949	-3.4	1,871,507	4.4	2,012,761	7.5	5.2

주: 1)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첨부 : CEO Report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